

초원과 태양의 찬가

(목장 개설편)3회

국토개발연구원

원종익

우유는 목장이 개별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우유회사나 우유조합에서 가지고 가요. 협정가격이 있어서 매일 아침 우유통을 저 아래 길가에 내어다 놓으면 조합에서 차로 실어 가는데 15일마다 한번씩 계산해서 우유값을 준대요」

「소는 제힘으로 풀을 뜯어 먹고 우유를 생산하니까 아주 쉬운 돈벌이군요」

「그렇지도 않아요. 매일같이 소를 돌보아야하고 또 소에게 병도 자주 생기고... 새끼를 가지면 젖이 안나니까 임신중에는 젖을 짤 수 없으며 송아지도 암송아지가 나야지 숫놈이 태어나면...」

「하긴 그래요.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어.」

이런 문답 가운데서 낮이 가고 해가 기울자 손님들은 돌아 갔다.

우유를 마시고 우유제품을 먹는 도시사람들이 최소한 그 우유가 어떻게 하여 생산되고 그 우유를 얻기 위하여 목장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안다면 조금은 우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인데...」

이것이 김정수씨가 얻은 그날 감상이었다.

해가 기울자 초지에서 소가 서서히 돌아 오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임신한 소의 출산날이 다가 왔다. 처음 당하는 출산이라 김정수씨는 미리 수의사에게 언제든지 와 주도록 예약을 해 두기로 했다.

그런데 산기는 밤중에 나타났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한 차례 둘러 보았더니 어미소의 상태가 이상하여

“아마 출산이 임박했나 보다”하고 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인 오전 1시 10분에 잠이 깬다.

다시 한번 둘러 보기 위하여 후레쉬를 찾아 들고 둘러보니 이미 출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씨는 깜짝 놀랐다. 소가 송아지를 출산하는 것을 생전 처음 본 것이다.

그는 전화통에 해어 달렸다. 수의사를 부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다른 목장에 출산이 있어서 거기 갔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응답이었다.

그는 마굿간에 전등을 달고 밝게 불을 켜 뒤 자세히 보니 어미소가 그 큰 눈을 부릅 뜬채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송아지의 다리가 두개 보이기는 하지만 좀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4시간이 지난 뒤 아침이 밝아 올 무렵에야 수의사가 오토바이 소리도 요란하게 도착했다.

소를 돌아 본 수의사는 표정이 어두워진채 무엇인가 수술 비슷한 준비를 했다.

“왜 그러십니까? 뭐 잘못 되었어요?”

“글세요. 아마 꺼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다리가 보였지요?”

“아마 1시 40분쯤 경일것입니다. 지금까지 같은 모양이에요”

“진작 왔어야 하는데... 하여튼 해 봅시다...”

수의사는 주사를 몇번인가 놓고 장장간 손으로 천천히 송아지 다리를 당겨 출산을 도왔다. 소의 신음소리가 한층 크게 들렸다.

30여분이 지난 뒤 간신이 출산을 하기는 했

는데 송아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수의사는 송아지를 꺼꾸로 들고 손으로 몇번 두드리기도 하고 다시 주사를 놓기도 했지만 송아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김선생! 안됐습니다. 송아지는 죽었습니다. 꺼꾸로 나오느라고 시간이 걸려 질식한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단념 하십시오”

송아지는 암 송아지였다.

그러나 죽은 것을 어떻게 하라.

“그만하길 다행으로 아십시오. 꺼꾸로 나오다가 잘 못 되면 어미소까지 다치게 됩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처음이니까 놀라겠지만 어미소가 무사한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 하십시오”

“.....”

김정수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목장경영을 하려는 그에게 시련을 안기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견디고 이겨야지!”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마음을 다져 먹었다.

그는 목장 한 구석에 송아지를 묻어 주었다. 이 작은 죽음이 앞으로 이 목장의 수호역이 되어 줄것을 간절히 빌었다.

다행한 일은 어미소가 그런대로 먹기도 잘하고 아무 탈이 없는 일이었다.

정말 “그만 하기를 다행”으로 여길 수 밖에 없었다.

사산을 했지만 젖은 분비 되었다.

첫 젖을 짜서 버린 뒤 곧 정상적으로 우유를搾수 있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었다.

송아지를 길러 첫 임신까지 약 2년 임신기간이 약 1년 도합 3년 가까운 세월이 걸려야 비로소 젖을搾수 있는 이 젖소 기르기는 성급한 사람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기본적으론 다른 것이다.

자연과 신의 섭리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린 뒤에야 겨우 우유라는 생산품을 얻게 되고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급한 마음과 욕심만으로는 안되는 일, 그것이 바로 목장이고 출산이라고 김씨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역경은 또다시

김정수씨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소 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300만원을 호가하던 젖 나는 큰소의 값이 250만원 선에 오더니 드디어 200만원을 밑돌게 되고 다시 150만원 선까지 내린 것이다.

한때는 출산 직후의 암송아지가 100만원을 웃돌던 시기도 있었다는데 그것이 절반이하로 떨어지고 끝내 30만원 정도까지 형편없이 값이 떨어진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단지 때 마침 가을 철이라 겨울을 앞둔각처의 목장에서 팔려는 젖소가 많아진 탓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지만 정확한 사정을 김씨는 알지 못했다.

우유값은 조합에서 협정가격으로 수매하고 있는데 그 값이 한참 묶여 있었고 사료 값도 크게 오르지 않는 않지만 사료를 사다 먹일 경우 우유 산출량과 사료값, 그리고 노력까지를 합치면 아무리 주판알을 굴려도 수지가 맞는 장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젖소 사육 목장이 별로 수입이 좋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젖소 값이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이유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급격히 소 값이 떨어진다는 일은 아무래도 납들이 가지 않는 고통일 수 밖에 없다.

장부상으로 계산할 때 김정수씨네 목장의 자산 평가액은 적어도 40%이상의 감소가 되는 것이다.

주먹구구로 총 투자액과 자산 평가액을 비교해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싫도록 하고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드린 정성은 간곳이 없고 본전마저 빼앗겨 버린 꼴이 되었다.

전신에서 힘이 빠져 나가듯 했다.

그러나 김정수씨는 다시 돌려 생각했다.

소 한마리의 값이 얼마가 평가 되든간에 소는 살아서 자라고 있으며 세마리의 소에서 젖을 매일 짜고 있으니 우유만 제대로 나와 준다면 소 값이 얼마 가느냐는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소를 팔아 버린다면 값이 크게 떨어졌으니 손해도 크겠지만 지금 팔지 않는 바에야 소의 시세에 그렇게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태를 유지 시켜 우유가 잘 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그가 해야할 일인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다시 우사를 돌보고 초지를 가꾸면서 건초만들기에 열중했다.

사료를 사다 먹이기 보다는 되도록 풀을 많이 준비하여 겨울철에 사료 사는 비용을 아끼는 것이 경영상 이롭다는 생각에서 되도록 건초를 많이 만들고 엔시레지도 사이로 가득 준비 했다.

가을 들면서 또 한마리가 임신했다.

송아지들도 별 탈 없이 자라 주었기 때문에 송아지 한마리를 죽인 슬픔은 그런대로 잊혀져 갔다.

이런 무렵 어느 목장에서 소를 싸게 내어 놓은 것이 있으니 이 기회에 사지 않겠느냐는 소식이 전해졌다.

1년 좀 넘는 송아지가 60만원이면 살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같으면 100여만원을 주어야 할 것이지만 젖소 값이 원채 떨어져 아주 조건이 좋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모로 생각 해 보았다. 어차피 소는 늘여야 하며 한번에 많은 소를 사지 않은 것은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경험도 얻었고 목장이 어떤 것인지도 알만하니 기왕 소를 더 사려면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하여 3마리를 사기로 작정했다.

막상 현금을 가지고 사러가보니 한마리당 52만원씩에 1년 넘는 소를 살수 있었다. 이전 같으면 갓난 송아지 값에 불과 했다.

이제 김씨네 목장은 소가 9마리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적어도 다섯 마리에서 젖을搾수 있을 것이다. 우유에서 얻은 수입으로 다시 송아지를 사서 내년에는 20마리까지 소를 늘릴 계획을 세웠다. 소값 하락이 젖소를 늘리기에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다시 꿈을 키워 가기로 했다.

보다 빠른 기상

보다 높은 이상

보다 힘찬 전진